

정부·현대차, 광주형일자리 성공의지 재확인

금융·기업 32곳 참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 2021년 양산체제 차량판매 지속·노사상생 유지 관건

지난 2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은 정부와 현대자동차 측의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자동차공장의 성공은 정부와 현대차의 의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양산체제에 들어간 이후부터 차량 판매가 꾸준해야 하고,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노사상생정신이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어떻게 이뤄질까?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31일 투자협약을 한 이래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몇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자동차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5754억원으로, 이 가운데 투자자들이 출자하는 자기자본금은 2300억원이다. 나머지 타인자본금 3454억원은 공장 건축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빌려 올 계획이다.

최대 투자자인 광주시는 산하기관인(재)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자기자본금의 21%인 483억원을, 2대 투자자인 현대자동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한다. 이들은 각각 신설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가 된다. 자기자본금의 나머지 60%인 1380억원은 32개 기업 및 기관이 맡고, 각각 투자금만큼의 합작법인 주식을 갖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앞서 밝힌 광주은행과 농협은행·한국산업은행이 투자자로 나선다.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 자동차부품기업 등 29곳도 합작법인 투자자로 참여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호반건설·중흥건설·모아건설·서진건설·대창운수 등 지역기업과 호원·지금강·대우에이텍·캠스 등 자동차부품 및 관련기업이 눈에 띈다. 각각 50억원을 투자할 것

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합작법인의 한 축인 현대차도 아낌없는 노력을 약속했다.

공영은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공장건설과 판매 그리고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사장은 "자동차 모델 개발과 판매에서 현대차가 최대한 지원하고, 사업이 이익을 내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현대차, 성공의지 재확인=정태호 대통령직속 일자리수석은 "지금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인 구미·대구·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대박나도록 청와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광주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전진지가 되길 기원한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광주형 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성공 요건은 판매와 대타협 정신 유지 = 이런 가운데 향후 성공 과제로 2가지 꼽힌다. 합작법인 자동차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꾸준히 팔리는 것, 그리고 노사상생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별보좌관은 통화에서 "합작법인 자동차공장에서든 여느 기업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조합원 이익을 도모하려는 노조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노사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도 협약식에서 "건설된 자동차 공장은 지속가능성, 수익성, 확장성 등 3대 비전을 갖고 친환경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수익성을 고려해 내연 SUV(스포츠형다목적차량) 경차로 시작하지만 미래자동차산업과 시장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사회대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중앙 부처 인사와 자동차부품회사, 금융권, 지역 관련 기업 등 투자자가 참석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곡성·장흥·영광에 설립

전남도, 연 6000만원씩 3년 지원

전남도가 마을 주민과 지자체 간 중간 고교역할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곡성, 장흥, 영광 등 3개 지역에 설립하기로 했다. 설치 시·군은 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교육과 현장지도, 공동체 관련 사업 계획 자료 등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과 수요에 맞춰 시군 지원센터 조기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초기 3년간 운영비를 센터당 매년 600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계획을 세워 마을공동체 형성 2000개를 목표로 지난 1년 동안 적극 추진해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의 기초를 세웠다.

집체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7년 30개, 2018년 50개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했다. 이를 확대해 올해는 총 22개 시·군에 172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중이다.

김희필 전남도 사회정책과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은 시·군의 마을 지원센터에 중심으로 하되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과 활동가 등 제반 여건이 준비된 시·군부터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폭염예방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등 7119곳 전기료 2억3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올 여름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취약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등 7119개소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냉방비(전기료)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총 2억2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5193개소, 마을회관 1893개소 등 7445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6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무더위쉼터의 안내표지판과 냉방기 작동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했다.

전남도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휴식을 취하도록 무더위쉼터 4345개소를 아간까지 자율 연장 운영하도록 하고, 6277개소는 휴일 개방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 주민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조성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싱가포르서 마리안느·마가렛 노벨상 홍보

김영록 전남지사가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추천 해의 홍보를 위해 지난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Beyond Health care to Health'를 주제로 이번 국제간호협회의 학술대회는 130여 나라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일까지 5일간 간호사의 정신 함양과 역할 제고를 논의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김지사는 이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사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임원 1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몸소 실천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업적을 소개하고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해 세계 간호사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희식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노벨평화상 추천 당위성을 홍보했다.

김지사는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봉세중) 회장단과 오찬을 하며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입장권 판매 늘고 인력 지원...광주수영대회 성공 예감

(주)서산 1000만원·하남산단공단 2000만원 구매...서울·대구 등 지자체도 잇단 지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입장권 구매가 줄을 잇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인력 지원에 나서는데 대회 성공이 예감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시청에서 (주)서산 1000만원,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2000만원, 광주불교연합회 1000만원, 미립산업개발(주)

2000만원, 기독교교단협의회 17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차례로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주)서산 회장),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스님, 허영호 미립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리종기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줘 감사하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성원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입장권 판매율은 판매 수량 대비 73.4%, 금액 대비 84.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와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111명이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며 대회를 지원한다.

지원 인력은 서울 22명, 전남 18명, 전북 10명, 대구 20명, 광주도시철도공사 15명, 광주환경공단 5명, 김대중컨벤션센터 4명 등이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항, 미디어센터 등에 배치돼 경기운영 지원, 수송 지원, 경기장 안내, 선수촌 관리 등을 한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Costa CRUIZING ITALIAN STYLE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속초/부산 왕복수송

10/8 인천항·상해·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속초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 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선부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10/15 속초항·블라디보스톡
▶ 사카미나토·부산항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선부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3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7월 19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8명 이상 3인실, 14명 이상 5인실, 20명 이상 10인실 할인

3/4인실 할인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고액 상품가

1명차 특별공연 / 가수 김성환, 전영록

2명차 특별공연 / 가수 홍서범 & 조갑경

2018 인기크루즈 BEST 3

선석순 20만원 할인 한/일 크루즈 5/6일
1,090,000원부터 ₩4877.5 선석관광 포함
▶ 7/3, 8, 12, 26 ~ 매주 월·수, 금요일 출발
▶ 새롭게 단장한 코스타 네오만티카호 탑승 ▶ 부산 출/도착

베스트셀러 알래스카 정통 빙하크루즈 6/10일
3,700,800원부터 ₩6201.5 선석관광 포함
6/7, 14 이후 매일출항. 매주 금요일 출발
▶ 루비 프린세스호 ▶ 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선상식

조기예약 최대 3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0,000원부터 ₩170/180유로 선석관광 포함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 6/21 ~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 6/28 ~ 매주 금 출발
▶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일급호텔 숙박

가전포함내선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료, 식비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일자리제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단계] ●여행유류 / ●여행자재 / ●항공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석경비(관망) 있음/없음 상황에 따라 선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석경비는 선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석관광 미 선석에 대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단계] ●여행유류 / ●여행자재 / ●항공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석경비(관망) 있음/없음 상황에 따라 선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석경비는 선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석관광 미 선석에 대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 불포함내역: 크루즈 객실 및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 선내 뷔페 및 레스토랑 정찬식, 선내 이벤트 및 부대시설 이용,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일부 유료시설 및 쇼 제외), 미팅/선상 포항, 크루즈 전문인솔자 중환, 선박TAX, 해외여행자보험

▶ 불포함내역: 선내 승조원배상(선인 \$72.5 ~ \$101.5 / 소아 \$37 ~ \$52), 기차역 선석관광(선석관광에 따라 상이) / 홈페이지 참조,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10

●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열차, 항공, 육해권 등은 면허규정에 따라 허사수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